신한금융투자 금융 Daily 7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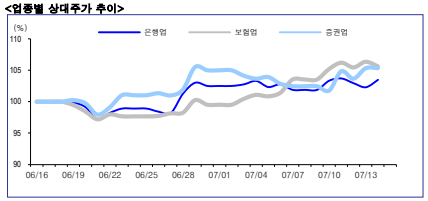
은행/카드 김수현 (02-3772-1515)
증권/보험 손미지 (02-3772-1572)

기준일	시가총액	증가	1D	1W	3M	1Y	PER(배)		PBR(배)		ROE(%)	
2017-07-14	(십억원,$bn)	(원,$)	(%)	(%)	(%)	(%)	17F	18F	17F	18F	17F	18F
은행업지수	89,662	945	1.4	0.3	18.8	60.8						
신한지주	23,283	49,100	0.1	(0.6)	4.5	29.6	8.0	8.3	0.72	0.67	9.3	8.5
KB금융	23,958	57,300	1.2	(0.2)	13.7	72.6	7.4	7.4	0.70	0.65	9.4	9.1
하나금융	14,179	47,900	2.8	3.1	28.1	102.1	8.7	8.0	0.60	0.57	7.1	7.3
우리은행	12,574	18,600	1.1	(1.6)	32.9	89.9	7.1	6.7	0.58	0.54	8.5	8.3
기업은행	8,232	14,700	1.4	(0.3)	19.5	34.3	6.3	5.8	0.48	0.45	7.8	8.0
BNK금융	3,536	10,850	1.4	0.5	18.7	27.8	6.1	6.0	0.53	0.49	8.5	8.0
DGB금융	1,996	11,800	1.7	1.3	7.3	37.3	5.8	5.4	0.51	0.47	9.0	9.1
JB금융	1,054	6,780	0.0	1.0	17.5	20.0	6.8	6.5	0.48	0.45	7.2	7.1
광주은행	672	13,100	0.0	(1.9)	18.6	53.4	5.8	5.1	0.47	0.41	8.2	8.7
삼성카드	4,513	38,950	0.5	(0.1)	(0.3)	(9.3)	11.3	10.8	0.64	0.64	5.7	5.9
BoA	240.9	24.2	(1.7)	(2.7)	6.5	79.8	13.6	11.3	0.97	0.92	7.8	8.9
Morgan Stanley	83.6	45.2	(0.7)	(1.7)	9.4	64.9	13.4	11.6	1.16	1.09	9.0	9.8
Goldman Sachs	93.6	228.6	(0.8)	1.2	1.4	43.3	12.5	11.2	1.18	1.10	10.0	10.4
JP Morgan	327.7	92.3	(0.9)	(1.0)	8.0	47.2	13.9	12.1	1.37	1.29	10.4	11.3
CITI	181.8	66.7	(0.4)	(1.4)	13.4	52.4	13.0	11.4	0.83	0.78	6.7	7.1
Wells Fargo	273.1	55.0	(1.1)	(1.1)	5.0	18.8	13.3	12.2	1.49	1.42	11.6	12.1
BNP Paribas	95.0	76.1	(0.9)	1.1	18.5	61.6	11.2	10.5	0.87	0.84	7.9	8.1
Deutsche Bank	39.1	18.9	(0.5)	(1.1)	11.2	43.0	14.6	10.2	0.50	0.49	2.6	4.6
공상은행	264.1	0.7	0.2	8.2	10.6	27.9	5.8	5.6	0.78	0.71	13.9	13.0
VISA	223.5	96.9	1.0	1.9	8.1	24.7	29.0	24.7	7.73	7.53	25.5	29.5
	시가총액	증가	1D	1W	3M	1Y	PER(배)		PBR(배)		ROE(%)	
보험업지수	61,453	1,977	(1.0)	0.8	13.1	24.1						
삼성생명	24,100	120,500	(1.2)	(2.0)	9.5	24.3	11.2	16.7	0.9	0.9	5.1	4.9
한화생명	6,401	7,370	(3.9)	(2.5)	19.4	28.6	13.7	12.5	0.7	0.7	5.6	5.9
동양생명	1,614	10,000	(1.0)	(1.0)	(1.5)	(4.2)	8.0	7.0	0.6	0.6	7.4	7.5
미래에셋생명	791	5,450	(2.3)	4.4	(6.2)	32.4	8.6	7.5	n.a.	n.a.	n.a.	n.a.
삼성화재	13,810	291,500	(0.2)	0.2	6.8	9.4	11.5	11.2	1.1	1.0	9.6	9.2
동부화재	5,551	78,400	(0.3)	3.7	13.6	21.0	10.8	10.3	1.3	1.2	12.4	11.8
현대해상	4,019	44,950	(1.0)	3.1	26.3	51.7	9.9	9.3	1.3	1.2	13.9	13.4
메리츠화재	2,389	21,650	0.7	3.6	27.0	49.5	8.1	8.3	1.4	1.2	17.4	15.7
한화손해보험	887	9,780	0.9	7.8	37.7	38.9	5.6	5.1	0.9	0.7	16.3	15.6
코리안리	1,487	12,350	(1.2)	(0.4)	6.9	4.1	n.a.	n.a.	n.a.	n.a.	n.a.	n.a.
ING GROUP	70.0	18.0	(0.3)	0.7	16.8	68.7	12.4	11.9	1.2	1.1	10.0	9.9
GENERALI	27.6	17.7	0.0	2.3	15.5	43.8	10.5	10.1	1.0	0.9	9.0	9.3
PRUDENTIAL	47.8	111.4	(0.5)	0.1	7.6	52.9	10.4	10.0	1.0	1.0	12.3	11.9
METLIFE	59.5	55.3	(0.7)	(1.3)	7.4	34.3	10.3	9.6	0.9	0.9	9.8	10.1
CHINA LIFE	113.0	3.2	(0.4)	4.4	9.6	42.9	23.4	19.7	1.9	1.7	8.5	9.7
MANULIFE	39.4	19.9	0.0	1.2	10.5	47.2	12.1	10.9	1.2	1.1	10.4	11.0
AIA	89.9	7.4	(1.0)	3.3	17.9	22.9	19.5	17.5	2.4	2.2	12.6	13.1
DAIICHI	15.9	22.4	0.8	0.4	4.6	(0.5)	23.3	24.3	1.4	1.4	6.3	5.6
SWISS RE	33.7	93.6	(0.3)	(0.9)	6.7	14.3	11.2	10.8	0.9	0.8	8.0	7.7
AON CORP	35.7	136.2	0.4	0.7	14.8	24.4	21.0	17.0	7.3	6.6	43.0	43.1
	시가총액	증가	1D	1W	3M	1Y	PER(배)		PBR(배)		ROE(%)	
증권업지수	28,999	795	(0.0)	3.6	30.0	40.4						
삼성증권	3,648	40,850	(0.4)	2.8	21.8	16.0	14.6	13.6	0.7	0.7	5.2	5.2
대우증권	7,563	11,350	0.0	5.6	29.3	36.2	18.4	14.9	1.1	1.0	6.0	7.0
NH투자증권	4,137	14,700	(0.3)	3.9	19.5	58.4	13.6	12.7	0.9	0.8	6.4	6.7
한국금융지주	4,023	72,200	2.1	5.2	54.3	63.3	11.4	11.0	1.1	1.0	10.0	9.6
메리츠종금증권	3,040	5,020	(0.4)	1.7	34.4	58.9	9.4	8.9	1.2	1.1	13.6	13.1
키움증권	2,029	91,800	(0.4)	1.7	16.5	25.4	12.0	10.6	1.5	1.3	12.8	13.0
대신증권	751	14,800	(2.0)	0.3	29.3	49.6	7.9	7.2	0.4	0.4	5.3	5.6
Charles Schwab	57.6	43.0	(0.3)	(1.4)	13.1	60.6	26.5	22.0	3.5	3.0	14.4	33.7
Credit Suisse	38.8	15.2	(0.7)	0.0	10.2	43.2	19.1	12.5	0.8	0.8	4.4	7.0
CITIC	30.0	2.1	(0.5)	3.8	4.5	(3.3)	13.8	12.0	1.1	1.1	8.8	9.6
Haitong	23.9	2.2	0.0	2.3	4.9	(3.4)	18.6	15.8	1.5	1.3	8.4	9.2
TD Ameritrade	23.8	45.0	(0.3)	0.4	21.0	56.6	27.3	22.5	4.0	3.9	16.4	18.6
Nomura	22.7	5.9	0.2	0.4	3.1	63.8	10.1	10.7	0.8	0.8	9.7	8.4
Macquarie	23.4	68.8	0.4	0.2	3.2	29.1	15.0	13.7	2.1	2.0	13.4	14.3
Daiwa	10.0	5.9	0.4	(1.6)	1.8	13.1	10.8	11.0	0.9	0.9	8.4	8.0
E*trade	10.9	39.5	0.2	2.1	16.8	58.6	19.9	17.1	1.6	1.5	8.5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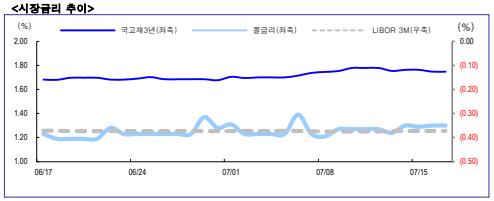
해외증시 지수(pt)	2017-07-14	1D	1W	3M	1Y
DOW	21,637.7	0.4	1.0	5.8	16.9
NASDAQ	6,312.5	0.6	2.6	8.7	25.4
S&P500	2,459.3	0.5	1.4	5.6	13.7
S&P 금융	412.9	(0.5)	(0.6)	8.5	30.0
영국	7,378.4	(0.5)	0.4	0.7	10.9
프랑스	5,235.3	(0.0)	1.8	3.2	19.4
독일	12,631.7	(0.1)	2.0	4.3	25.5
일본 니케이	20,118.9	0.1	1.0	9.7	22.8
상해종합	3,222.4	0.1	0.1	(0.7)	5.5
홍콩 항셍	26,389.2	0.2	4.1	8.8	22.4
대만 가권	10,443.9	(0.2)	1.4	7.3	17.8
국내증시 지표	**2017-07-14**	**1D**	**1W**	**3M**	**1Y**
주가지수(pt)					
KOSPI	2,414.6	0.2	1.5	13.1	20.2
KOSDAQ	654.1	0.2	(1.5)	5.8	(7.0)
금융업	531.9	0.6	1.6	17.1	34.5
시가총액(조원)					
유가증권시장	1,512.6	1,509.4	1,484.7	1,332.2	1,232.5
KOSDAQ	210.5	209.3	219.4	199.8	214.9
금융업	301.3	299.5	296.5	165.8	143.6
증시전체PER(배)					
유가증권시장	10.1	10.1	10.0	9.4	10.7
KOSDAQ	16.9	16.8	17.2	14.9	19.7
금융업	9.6	9.5	9.4	8.9	8.0
증시전체PBR(배)					
유가증권시장	1.1	1.1	1.1	1.0	1.0
KOSDAQ	2.1	2.1	2.1	1.9	2.2
금융업	0.8	0.8	0.8	0.6	0.6
일평균거래대금(조원)	7.8	8.9	7.8	6.7	8.4
유가증권시장	5.1	6.0	5.3	3.3	4.2
KOSDAQ	2.7	2.9	2.6	3.4	4.2
투자자비중(%)					
기관	14.4	18.7	16.1	9.9	12.4
개인	62.5	58.1	59.1	77.4	71.0
외국인	23.2	23.2	24.8	12.7	16.6
기타	0.0	0.0	0.0	0.0	0.0
증시자금 추이(조원)	**2017-07-13**	**1D**	**1W**	**3M**	**1Y**
고객예탁금	-	-	23.9	23.1	23.6
신용융자	8.5	8.5	8.5	7.2	7.2
미수금	0.1	0.1	0.1	0.1	0.1
펀드 설정원본	511.7	511.5	506.8	505.3	484.8
주식형	68.9	68.8	68.8	69.0	77.8
혼합주식	8.5	8.5	8.4	7.9	8.3
혼합채권	21.6	21.7	21.7	24.0	30.2
채권형	105.6	105.7	105.1	103.4	105.1
단기금융(MMF)	124.5	124.4	120.6	133.1	123.2
기타	182.5	182.5	182.2	167.8	140.1
환율 및 금리	**2017-07-14**	**1D**	**1W**	**3M**	**1Y**
원/달러	1,133.3	1,136.4	1,154.4	1,139.9	1,138.3
엔/달러	112.5	113.3	113.9	108.6	105.4
원/엔	10.1	10.0	10.1	10.5	10.8
달러/유로	1.1	1.1	1.1	1.1	1.1
Dollar Index	95.2	95.7	96.0	100.5	96.1
위안/달러	6.8	6.8	6.8	6.9	6.7
미국채10년	2.3	2.3	2.4	2.2	1.5
미국채2년	1.4	1.4	1.4	1.2	0.7
국고채10년	2.2	2.2	2.3	2.2	1.4
국고채5년	1.9	1.9	2.0	1.9	1.2
국고채3년	1.7	1.7	1.8	1.7	1.2
LIBOR(유로)	(0.4)	(0.4)	(0.4)	(0.4)	(0.3)
CALL	1.3	1.3	1.3	1.3	1.2
CD(91일)	2.7	2.7	2.7	2.7	2.7

주요 금융 지표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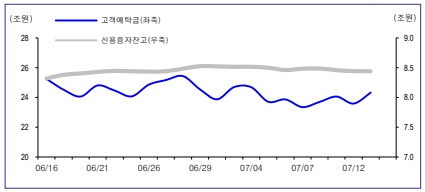
<업종별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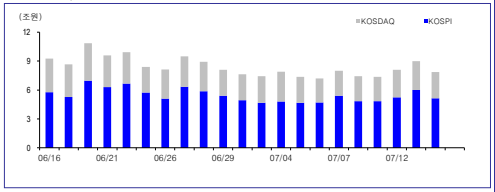
<시장금리 추이>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잔고>



<거래대금 추이>



주요 금융 뉴스 및 코멘트

▶신한·KB·농협, 같은날 계열사 CEO 모아 경영회의…"협업" 강조 <연합뉴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 14일 각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영전략을 논의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각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모두 그룹사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초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지주사의 각종 칸막이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은행권, 하반기 경영 디지털금융 올인 <국제일보>
은행권이 디지털 금융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조직 개편을 진행; 핀테크로 대표되는 금융권의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은행의 핵심 부서가 과거 전략기획실 인사부 등에서 미래 생존과 직결된 디지털금융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

▶은행 '맞춤형 신탁' 승부수 <이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신탁업무운용수익은 2004억 8600만원으로 집계; 전년 같은 기간(1365억 3000만원) 대비 56.7%가량 증가한 수치
은행권의 치열한 신탁업 경쟁 속에 신탁 수익이 쑥쑥 성장하고 있는 모양새; 현재 금융당국이 신탁업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금형'·'맞춤형' 신탁상품 출시를 통해 신탁시장을 미리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

▶은행권 가계대출 현황, 은행연합회 통계시스템서 확인 <머니투데이>
은행연합회는 17일부터 '은행통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해 국민들에게 은행통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음; 은행통계정보시스템은 은행통계월보, 은행통계연보, 은행통계조회, 자료실 및 고객지원 코너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은행 및 업권별 각종 재무현황과 경영지표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예컨대 원화대출금, 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율 등이 담겨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됨

▶은행, 정부 사업권 경쟁 심화 <FN타임스>
은행들이 정부 관련 사업 운영권을 두고 올해 내내 경쟁을 벌일 전망; 그러나 무리한 혜택 제공으로 역마진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 나오고 있음
KB국민은행은 최근 경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 '청수리 대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KB국민은행이 청수리 대출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낮은 신용대출 이율과 풍부위한 복지카드 혜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음; 은행들의 경쟁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는 시금고 운영권들이 하반기에 만료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

▶기업은행, 중소기업 매각 대행사업 시작 <한국경제>
기업은행은 경영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엑시트 사모펀드' 사업을 하반기 들어 본격 추진하고 있음

▶부산銀, 경영 공백 이어 충당금 '비상' <매일경제>
부산은행은 부산에 본사를 둔 중견 기업 동아스틸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야 할 위기에 처함;동아스틸은 연매출 1000억원대의 강관 제조회사로 지난달 부산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최종구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신속히 검토" <연합인포맥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힘

▶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엔 은산분리 완화해야" <이데일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작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은산분리 규율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음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현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34% 이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것

▶최종구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 필요" <이데일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밝힘

▶"금융위,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한국일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지분율 10%)인 우리은행에 대한 특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

▶KB증권, 디지털, 파생팀 신설… IB, 자산관리 고도화 <FN타임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초대형IB를 맞아 우수한 딜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질적 성장에 집중

▶기대했던 독립투자자문 '썰렁'…증권사 자문플랫폼 경쟁만 '혹끈' <이데일리>
국민 재산증식 프로젝트의 회원으로 도입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Individual Financial Advisor)가 시행 두 달째 감감무소식; 자본금 1억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지만 자문수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 환경에선 쉽지 않단 지적; 반면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금융상품 중개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 증권사들은 자문플랫폼 경쟁이 한창

▶금리 상승하고 있는데…생보사들 자산운용 실적 부진 <메디컬투데이>
시장금리가 상승을 부리고 있지만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자산운용이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생보업계는 운용자산은 장기 자산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금리가 반영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계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대표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신한금융투자